

# '귀에 담기는 모든 소리, 손끝으로'

갤러리 숲 개관 10주년 기획 초대전 '정소라 개인전' 11~23일 개최

갤러리 숲 개관 10주년 기획 초대전으로 정소라 개인전이 11~23일까지 열린다.

작가에 따르면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날 문득 듣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손을 쓰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다. 이번 작업은 3가지 조건 중 귀에 집중한 작업이다. 귀에 담기는 모든 소리를 가장 예리한 펜을 이용해 최대한 손끝으로 전달한다.

가만 보면 항상 귀가 심심했다. 눈, 손, 머릿속 뭐 하나 안 바쁜 곳이 없는데. 왜 귀가 한가하다 느꼈을까. 지독스러운 주인을 만났다. 일거리를 쥐어줬다.

속택배 박스 타입 귀는 소리가 반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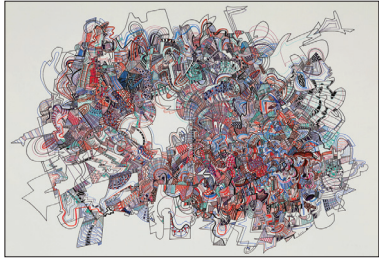
드글 드글~ 냉장고인지 김치냉장고인지 분명 차가운 텐데 무언가 뜨겁게 끓고 있다.

각-각 드그드그 이제 놀라지 않는다. 프린트기의 흔자발.

커피와 흰. 제 몸을 희생시켜 힘껏 들고 돌아

나에게 상쾌함을 선물할 기계들.

음악도 그냥 들어선 안 된다. 계절과 날씨에



정소라 작가 작품

맞게 또 상황과 스토리를 설정하고 설명으로 시작, 이별로 끝나는 음악 리스트 만든다. 장르도 클래식부터 국악, 록, 가요, 동요 가리지 않고 듣는다.

어떤 날은 무음 이어폰을 꽂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적도 있었다.

특히, 가족보다 친구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검은 그림자. 그 안에서 세상을 분석하고

소비하고, 지금을 듣는다.

선택적 듣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소리에 예민

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생각해 보니 듣는 것에 약간의 까칠, 예민해진 것은 생존 문제였다. 30대 중반부터 10배 정도 청각이 발달 된 것 같다. 듣지 않으면 생명을 키워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이다.

그래서였을까. 언제부턴가 자막을 켜고 TV나 미디어를 보는 것에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다. 본능적으로 귀에 피로감을 줄여주고 싶었다. 적어도 눈은 닫아버리고, 손은 놔버리면 되니까. 고생한 나의 귀에 이 전시를 바친다.

한편 정소라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미술학과 박사학위를 수료했다.

베를린, 인천, 전주에서 10번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국내외의 화랑 및 미술관에서 1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8년 전라청년미술상과 2015년 교통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전북도립미술관, 전주시청, 교통미술관,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법원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애지중지-공예를 소중히 여기다' 기획 상품전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애지중지(愛之重之)-공예를 소중히 여기다' 기획 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가을 시즌 기획으로 한뼘한뼘

공예품 제작한 공예품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 하자는 마음으로 '애지중지(愛之重之)'를 콘셉트로 정했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전시관에 입점된 공예작

가(업체)의 상품들로 옷걸이틀러를 비롯해 옷걸이, 식기류, 섬유, 기타 제품군, 테이블 매트, 시나몬소이캔들 등 총 16종을 구성,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을 담은 무료 한지띠지 포장 서비스를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 빅데이터 활용 교육 참가생 모집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오는 15일까지 관광 빅데이터 활용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 빅데이터 활용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18~20일 3일간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진행되며, 관광분야에 관심 있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업무 활용을 위한 관광 빅데이터 기초 실습, △비개발자를 위한 챗GPT 이해, △챗GPT 활용 사례와 실습, △관광기업들을 위한 스마트워크 실습,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사례, △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습, △SNS 홍보 마케팅 실무 및 콘텐츠 제작 실습 과정 등이다.

교육은 전 과정 무료며, 온라인(https://naver.me/GlsrAwB)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초등생 대상 탐구활동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황성수)과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홍찬)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미니사 프로젝트'라는 탐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생물과 지질 2개 분야로 나눠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생물은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 지질은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26명의 학생들에게 이론 교육과 야외조사 활동, 여름방학 집중교육, 탐구활동 발표대회 등을 가졌다.

먼저 생물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현미경을 통한 세포 관찰, 어류 해부 등 실험실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또한 전주천 생태조사를 통해 쉬리, 피라미, 참갈겨니, 돌고기, 격지 등 어류와, 어리장수잠자리 유충, 실잠자리 유충, 검은 물잠자리 유충 등 수서곤충, 돌에 붙어있는 부착 조류도 직접 채집해 관찰했다.



이어 지질분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를 이루고 있는 암석에 대해 알아보고, 좁은목 약수터 일대로 야외조사를 나가 노두를 관찰하는 방법과 야외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추가로 관찰해 암석명을 결정하는 암석 동정법을 배웠다.

황성수 관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는 최근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의 지목을 받아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이하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BBP 챌린지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의미의 양손을 흔드는 '안녕(Bye)' 자세와 착한 소비 실천을 확산시키겠다는 실천각오를 SNS에 게재해 탈플라스틱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5일 재단에 따르면 ESG경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Environment) 분야에서 종이 소비량 감축, 일회용품 사용 감소, 지역 환경개선 참여 등 탄소감축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구의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보다 많은 영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는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재단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경운 대표이사는 다음 주자로 전



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과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을 각각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 오케스트라 선율로 만나는 디즈니 명작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디즈니 100주년 기념 '디즈니 인 콘서트' 9일 개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오는 9일 모악당에서 디즈니 100주년 기념 '2023 디즈니 인 콘서트(Beyond the Magi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무대 위 대형 LED 스크린에 펼쳐지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뮤지컬 배우들의 하모니로 디즈니 작품 속 명곡을 만나는 공연이다.

5일 전당에 따르면 공연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디즈니 명곡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어공주', '라이온킹', '미녀와 야수', '알리딘' 등 오랜 기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디즈니 고전 명작부터 '라퐁젤', '모아나', '겨울왕국', '엔칸토' 등 최근에 개봉해 꾸준히 인기를 끈 작품의 수록곡까지 더해 남녀노소, 전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

특히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들이 디즈니 싱어즈로 참여해 더욱 탄탄하고 실감나는 연기와 노래로 디즈니의 감동을 무대에서 재현할 예정이다.

뮤지컬 '킹키부츠', '몬테그리스토' 등에서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보여준 뮤지컬 배우 신재범이 알리딘역으로 캐스팅 됐으며, 뮤지컬 '하데스타운', '킹키부츠'의 히로인이자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를 통해 실력을 입증한 김광희와 뮤지컬 계의 라이징



스타 이종석, 홍경아가 합류해 더욱 탄탄하고 실감나는 연기와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